

1. 천국과 지옥을 묵상하며 사는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느 목사님은 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세 번 놀랄 것이다.

첫째,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둘째, 분명히 천국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셋째,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가장 놀랄 것이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본 적 없는 영역이기에,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옥에 가면 어찌지?”

이런 질문은 신앙을 가진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단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천국을 얻기 위해 공포 속에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사랑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라고 협박조로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되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지옥에 가지 않을 자신은 있으신가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신앙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거나 협박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참된 목자이시며, 신실한 인도자이십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으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자유로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이 두려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은 “불신 지옥”이라는 협박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시작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을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 아닐까요?

##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옥에 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나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경험을 나눠 주세요.

→ \_\_\_\_\_

- 신앙생활에서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라는 **두려움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따르는 **자발적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_\_\_\_\_

- 시편 23편처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여러분 삶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 \_\_\_\_\_

-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불신 지옥”이라는 협박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들으셨나요? 협박식 복음과 사랑의 초청으로서의 복음은 어떻게 다르게 삶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 \_\_\_\_\_

-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나요?

→ \_\_\_\_\_

- 신앙의 궁극적인 질문이 "천국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행의 증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_\_\_\_\_

###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주님, 우리는 종종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며 두려움과 의문 속에 흔들립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옥에 가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 속에서 불안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경은 우리를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부르심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불신 지옥"이라는 협박으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약속으로 시작됨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에 기쁨과 자유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묻는 대신,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이끌려가게 하시며,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